불교계, 출토문화재 소유권 '시금석' 마련

월정사 12월 9일 출토 유물 소유권 2심 재판서 승소

사찰 앞마당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사찰 출토문화재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월 9일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 작업 중 발견된 송나라 화폐 성송원보와 고려 금동불상 등 13점의 국가귀속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과 월정사가 진행한 소유권 2심 재판에서 월정사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출토유물은 2000년 12월 대적광전 앞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 과정 중 좌상 하단에서 발견됐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주변 500㎡ 토지를 시·발굴 조사해 1000여점 이상의 유물들이 수거했다.

문화재청은 출토 유물 중 고려시대 성송원보, 숭령중보, 금동제 보주, 수막새, 법수편, 명문 암막새편 등 10건 13점을 매장문화재발굴조사사업 처리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를 거친 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다.

월정사는 이에 2003년 2월 국가귀속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011년 반환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2012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은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문화재청은 곧바로 항소했다.

출토 문화재 소유권, 출토지 연관성 따라 귀속 판가름

월정사 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송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소유권에 대한 공고과정에서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김형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사찰 소유 문화재에 대해 공고 절차 이후에도 사찰 소유이면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월정사가 이전하지 않았으며 실제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이란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측으로부터 사찰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을 받은 송나라 동전 등의 반환도 결정됐다.

재판부도 "유물이 발견된 자리는 사람이 살면서 쓸거나 정리해온 곳으로 발견 당시부터 월정사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30일 소유권 공고 기간 압박에서 벗어나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사찰이나 불교법식과 전혀 관련없는 문화재가 아닌 이상 불교의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유산으로 해당 사찰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공고 기간에는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더라도 30일동안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 사찰이 문화재 당시의 사찰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해당 사찰이 직접 입증하게 돼 있어 짧은 기간동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월정사 1차 출토문화재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출토유물 전시전 모습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공고 기간을 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월정사의 경우 1차와 2차 출토 문화재 중 2차의 경우에는 30일 공고기간 동안 소유권 사유를 밝혀 이를 인정받았으나 1차는 공고기간을 넘겨 소송으로 번졌다.

홍은미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사는 "월정사의 경우 2차 건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받은 상태이기에 1차 건에 대해 협의가 미리 진행됐다. 출토유물들은 현재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관사 등 소송에 영향 미칠 듯

현재 불교계에서는 2004년 양주 회암사가 옛 회암사터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문화재청과 벌여 승소한 이후 진관사 등이 출토문화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관사의 경우 2009~2010년 서울역사박물관이 경내에서 조선시대 유물 272점을 발굴했지만,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찰 출토문화재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종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사무관은 "국가 소유로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장기간 보존·전시 중인 문화재가 많은데 사후 소유권 주장으로 모두 사찰로 가져간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사찰문화재는 사찰 소유이면서도 국민 문화유산"이라며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의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불교, 우경화 침묵은 반불교"

이성수 불교신문 부장, 〈불교평론〉 논단 통해 주장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정부와 보수단체에게 침묵하는 일본불교계의 모습은 불교 가르침에 배치되는 '반불교적' 태도다. 이를 보며 한국불교는 타산지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 부장〈사진〉은 최근 〈불교평론〉 겨울호 논단을 통해 "일본불교의 침묵은 국가주의에 대한 방조, 방관"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불교계는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불교 근본 가츠침인 비폭력 평화에 입각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부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 가톨릭, 기독교와 달리 불교계는 '무관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략전쟁에 동조한 근대 일본불교의 과거사를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종교인 또는 불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불교인은 불살생의 계율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 침략전쟁으로 숱한 생명을 희생시킨 과오를 저지른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막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바로 지금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개성 영통사·관음사 담은 '사진집' 발간



개성 현화사지 7층 석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최근 고려 수도 개성의 중요 유적 16개소를 소개하는 〈개성의 문화유적〉 사진집을 발간했다.

〈개성의 문화유적〉 사진집 올해 개성 영통사 등 개성 중요 유적군 12개소가 '개성역사유적지구(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한 것이다.

사진집에는 개성 영통사, 관음사를 비롯해 현화사비와 7층 석탑, '만월대'로 알려진 고려궁성, 왕건왕릉, 공민왕릉,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표충비, 선죽교, 개성 남대문, 대흥산성, 개성 첨성대 등 국보유적 12개소가 담겼다. 이와 함께 목청전, 명릉, 칠릉 등 보존유적 3개소와 서경덕묘 일반유적 1개소에 대한 자료도 사진집에 실렸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사진집의 발간이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알고 살펴보는 계기와 민족공동자산인 북한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2월 10일 국내 주요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성과와 최근 연구동향을 수록한 '2005~2010 한국고고학집간(韓國考古學集刊)' 중국어판과 '2012 한국고고학저널(Journal of Korean Archaeology)' 한글·영어판을 발간했다.

노덕현 기자

고흥 탑쟁이골서 고려 후기 석탑 발견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서 고려 후기인 13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발견됐다. 남도석조불상연구소(소장 이홍식)는 12월 3일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최인선 교수, 부산문화재연구소 민학기소장과 함께 시행한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여산 송씨 선산 현장 조사에서 240㎝ 높이의 석탑을 발견했다.

발견된 석탑은 1층 탑신석이 고준(高峻)한 백제계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단부 위에 각각 2개의 탑신석과 옥개석이 쌓여 있는 상태로 기단부는 모두 망실되고 지대석, 혹은 기단갑석으로 추정되는 네모난 부재 위에 1층 탑신석이 서 있는 형태다.

최인선 교수와 민학기 소장은 하지만 탑의 층급받침이 생략된 점이나 치석술이 미숙한 것에 대해 백제계 석탑의 한 특징인 초층 탑신석이 매우 고준해지는 양식의 마지막 시기인 13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평했다.

석탑을 처음 발견한 이홍식 소장은 "이곳은 주민들이 '탑쟁이골', 혹은 '절터골'로 부르는 곳으로 두원면 일대 불교문화재를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고흥군 및 관련 학계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석탑과 용산리석조보살좌상 및 고흥군 내 고려시대 불교예술과의 관계를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숭산 스님은 '회통 사상' 실천한 포교의 화신"

최용운 서강대 교수, 12월 7일 화계사 집중세미나서

"숭산 스님은 대중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란 회통의 관점에서 포교활동을 펼쳤다. 해외포교와 종비생 지원 등의 모습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최용운 서강대 외래교수는 12월 7일 서울 화계사에서 열린 '삼각산 화계사 역사의 안팎과 인물의 앞뒤' 학술세미나에서 숭산 스님〈사진〉의 포교관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 교수는 이날 '숭산 행원의 업적에 대한 포교적 관점의 연구' 발표를 통해 "숭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회통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가 세계포교에 뛰어 든 것은 새롭게 보여준 회통의 실천적 의지"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은 한 평생을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를 위한 삶을 살았던 포교의 화신이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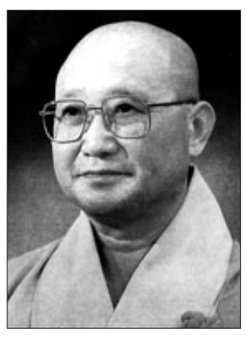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은 동국대 석림회가 창립돼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단의 적극적 지원을 역설했으며 화계사 큰방을 기숙사로 내어 지원에 앞장서는 등 종비생 지원에 나섰다"며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불교에서 승가공동체가 전문적 소양을 지닌 인재들로 변모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됐다"고 예를 들었다.

또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이 화계사 조실로 있는 동안 해외제자들이 빈번하게 출입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화계사는 대중포교 구심점을 찾게 됐다"며 "또 〈불교신문〉의 창간 및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포교범위를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숭산 스님이 관음선종을 창건해 포교적 측면에서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은 관음선종 내 계율을 제정해 서구문화에 적합하게 토착화했다. 또 한국 간화선 수행법과 일본 임제종 수행법을 연결한 새로운 수행법을 적용시켜 두 나라 불교 수행법의 통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한국불교연구소 소장 고영섭 교수는 "화계사는 신학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불교연구회를 창설하고 근대적 교육기관인 동국대학 전신 명진학교를 개교한 월초 거연(月初 巨然, 1858~1934) 스님, 선찰로서의 위상을 확립시킨 고봉 경욱, 덕산 종현, 숭산 행원 스님 등이 머무르며 서울의 대표 사찰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국내외 '인물의 중심부'를 형성한 사찰'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앞으로 서울 화계사를 넘어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호흡을 함께 하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